

# 韓國目錄規則編輯後感

—우리나라 圖書館 近代化의 첫걸음—

張 一 世

韓國目錄規則 編輯을 끝내고 이 後感을 쓰게되니 매우 感慨無量한바 있습니다.

도리켜 보면대 朴奉石先生께서 우리 나라 初有의 「東書編目規則」을 上梓한 것이 1948年의 일이었습니다.

解放 直後 갈피를 못잡던 우리 나라 圖書館界에 큰 光明의 길을 열어 준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圖書館이 바로 發展했어야할 20世紀 前半을 어둠속에서 지나온 우리들에게는 眞正한 우리나라를 爲한 圖書館 發展을 圖謀할 수 있는 여러가지 必要한 資料들이 생길 理가 萬無하였읍니다. 그 時代에 存在했던 圖書館은 모두 日人들에 의하여 運營되었고, 또 日本式에 따라 모든것이 만들어 졌던것은 勿論입니다.

그러나 그 日本式이라는 것 그 自體도 아무 統一性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自我流에 의한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圖書館에서도 아무 統一性이 없는 그리고 圖書館이 제멋대로의 方針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임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日本人들의 遺産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圖書館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되지도 못한 말만의 圖書館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더욱이 日本人들의 所謂 文化政策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圖書館에서 專門

의인 일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解放을 맞이 했을 때의 우리나라 圖書館界는 可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暗黒속에 헤메게 된 우리나라 圖書館界에도 한가닥 希望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朴奉石氏의 業蹟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朴奉石先生은 1931年 봄 當時의 惠化專門學校(지금의 東國大學校)本科를 卒業하자 곧 若冠 24歲로서 現國立圖書館에 職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解放이 있을 祖國의 앞날을 爲해 10年을 하루같이 圖書館業務에 從事하는 동안 꾸준한 研究와 奮闘를 계속하였읍니다.

1945年 解放을 맞은 朴先生은 우리나라의 將來를 생각하고 곧 韓國을 爲한 圖書館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方案을 摸索하게 된 것입니다.

解放을 본지 2년도 못되어 우리나라 圖書館에 없어서는 아니될 「朝鮮十進分類表」를 出版하였고 그로부터 1年만인 1948年 10月에는 역시 圖書館의 基本的資料인 「東書編目規則」을 著述하였던 것입니다.

當時의 國立圖書館長兼 韓國圖書館協會長이던 李在郁先生도 말씀한바와같이 上記한 二大著作은 우리나라 館界를 爲한 劃期的인 快著였으며 우리나라 圖書館界 앞날을 爲한 햇불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

입니다. 그 理由는 解放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圖書館이 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를 爲한 圖書館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를 아무도 몰랐고 또 우리나라 圖書館을 만들기 爲한 資料도 全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民族의 悲劇인 6·25 事變은 이러한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指導者인 그분을 끝끝내 뺏어 가고야 말았습니다. 朴奉石先生은 1950年 7月 13日 拉北되었습니다. 그 後의 消息은 勿論 알길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悲劇은 그분 個人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全體 圖書館人의 悲劇이었습니다. 마치 船長을 잃은 배와 같이 우리 圖書館界는 光景질광 하였습니다.

朴先生이 남긴 二大著作은 우리나라의 圖書館界가 活潑해짐에 따라 더욱더 重要な 價値를 띠게 되었음은 勿論이러니와 社會에서의 圖書館에 대한 새로운 認識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圖書館에 對한 關心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자 그 重要性은 더욱 加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社會環境의 變化는 圖書館發展에 큰 刺戟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圖書館學의 導入을 促進하게 되었으며 美國의 教育使節團의 派韓으로 말미암아 더욱 絶頂에 到達하게 되었습니다.

美國의 教育使節團과 美國務省에 의한 圖書館專門人 養成計劃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美國의 여러 圖書館學校나 또는 著名한 圖書館에서 修學하게 된것은 우리나라 圖書館學과 圖書館 發展에 決定的인 契機를 이룩하게 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圖書館學의 元祖인 美國에서의 專門人 養成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圖書館

發展을 數十年 빠르게 한것이 事實입니다. 朴奉石氏의 「朝鮮十進分類表」와 더불어 「東書編目規則」은 우리나라 圖書館史에 있어서 永久히 하나의 金字塔을 세운것은 事實이지만 앞에서도 이야기 한바와 같이 日本時代의 뒤떨어진 圖書館學과 圖書館 實務에서 얻은 結果는 到底히 發達한 다른 나라들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分類表라든지 또는 編目規則은 不斷한 研究로서 改正補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先進國家로부터의 새로운 學問의 直輸入은 더욱 改正과 補充의 必要性을 切實하게 만들었으며 解放된지 10餘年동안의 草創期로부터 飛躍的인 發展을 期約하기 爲하여서도 또한 그것이 必要하였습니다.

그러면 果然 어떤 面을 是正하여야 하는나? 하는 問題가 생기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全面的인 是正이 必要하다는 것은 勿論이지만 編目法의 二大潮流인 著者主記入法과 書名主記入法中 前者를 擇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世界의 潮流가 흐름에 따라 그 方法으로 우리도 果敢하게 轉換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 問題는 참으로 큰 問題이고 또 이에 따라 派生되는 目錄의 再編成에 따른 經費問題 人員 問題等等 實로 莫大한 時日과 經費가 關聯되는 것이므로 輕率히 決定지을 問題가 아닐 것입니다. 書名主記入 方法이 過去 數十年동안 우리나라의 圖書館을 휩쓸은 關係로 因해서 더욱 이 問題는 深刻한 것이었습니다. 1956, 7年頃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圖書館界에서도 著者名主記入法으로의 意見이 거의 統一되었다는 것은 世界의 潮流를 그대로 反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히 무엇을 어떻게 是正하였어야 하느냐 하는 問題를 列擧하느니 보다도 이번에 出版을 보게된 「韓國目錄規則」이 어떻게 이루어진것이며, 이 規則의 特徵은 무엇인가를 記述해보는 것이 더욱 意義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規則이 만들어진 經緯를 간단히 記述하고자 합니다.

이미 前述한바와 같이 1950年代 中盤에 이르러 目錄規則이 更新되어야 하겠다고 關係者들 間에 論議는 되었으나 이 大事業을 成就시킬만한 뒷받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還都後에 再組織된 圖書館協會는 아직 活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財政의으로도 到底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狀態로 5, 6年을 보내게 되었으나 도리어 1962년에 이르러 이 큰 事業을 着手하게 된것은 沸騰할 輿論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發展과 社會環境의 變化로 말미암은 것임은 두말할것도 없읍니다.

圖協은 1962年 5月 14日의 全體 技術委員會에서 目錄分科委員會를 設置하고 目錄規則 制定事業을 強力히 推進하기로 決定함과 아울러 目錄分科委員會 委員으로서 白麟, 尹炳泰, 千惠恩, 劉永鉉 및 張一世等 5人을 選出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事業이 워낙 큰 事業이므로 해서 目錄分委는 1962年度의 事業 目標로서 目錄法中 「標目的 選定」과 「標目的 形式」 部門만을 完成하기로 하고 1963년에 가서 「記述目錄規則」을 完成시키도록 決議하였읍니다.

目錄規則을 草案함에 있어서는 美國圖書館協會 目錄規則 1949年版을 第一次 參

考資料로 삼았고, 第2次로 바티칸圖書館 目錄規則 1948年版을, 第3次資料로 朴奉石氏의 東書編目規則, 第4次資料로는 日本目錄規則 1952年版을 各各 採擇하기로 함과 同時에 1961年 10月 佛蘭西 巴里에서 開催되었던 國際目錄會議에서 採擇된 여러가지 原則을 우리의 目錄規則에서도 充分히 살리도록 할것을 아울러 決議하였읍니다.

1962年 11月 下旬에는 豫定한대로 草稿가 完成되었음으로 이것을 項目別로 編成하고 印刷코자 하였으나 用語 및 形式이 統一되지 않고 또 여러 圖書館實務者들의 意見을 좀더 널리 綜合하기 爲하여 爲先 프린트版으로 내놓았읍니다. 1963年 1月에 이르러 우리나라 初有의 著者名記入形式에 의한 目錄規則의 前半部가 世上에 나오게 된 것입니니다.

1963年 2月에는 63年度의 目標인 「記述目錄規則」을 草案함에 앞서 이미 프린트版으로 出版된 「標目的 選定」 및 「標目的 形式」 部門을 좀더 嚴密히 檢討하고 또 63年度의 目標을 早速한 時日內에 完成토록 하기 위하여 目錄分科委員會를 改編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여기에 選定된 委員名單은 다음과 같습니다, 白麟, 李喆珪, 張一世.

그後 오늘날까지 數十次에 걸친 會合을 通한 討議와 研究끝에 1963年末로 그 原稿가 完成되어 印刷케 된 것입니니다.

以上 이 「韓國目錄規則」이 出版되기까지의 略史였읍니다.

그러면 우리의 目錄規則의 뚜렷한 特徵을 簡單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著者名主記入形式을 採擇했다는 것입니니다.

이미 前述하였으므로 되풀이 하지 않겠으나 書名主記入에서 著者名主記入에의 轉換은 圖書館의 現代化를 爲하여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命題이었던 것이 이번 機會에 成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들께서는 標目的 形式을 한글로만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 問題는 별로 重要한 것 같지 않지만 事實은 큰 意義를 가지는 것입니다.

事實上 지금까지도 標目記入의 統一이 이루어 지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漢字로도 쓰고 한글로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글로만 쓰기로 한 까닭에 번거로운 表記를 하지 않아도 좋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目錄排列이 極 簡便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書名을 主記入으로 하여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럴수가 없습니다. 그 理由는 標題紙에 있는 標題를 그대로 옮겨야 하는 規則이 있기 때문인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書名主記入 目錄만은 表記를 해 주어야 하는 例外를 認定치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셋째는 外國人名, 書名等を 齣字標目을 한 것입니다. 이 問題는 바로 앞에서 말씀 드린 第2項을 理解하신다면 首肯이 가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外國人名이나 外國書名이 標目으로 쓰일때는 참으로 여러가지 形式이 쓰였던 것이고 또 매우 複雜하였었습니다. 이것을 역시 한글로 齣字하여서 使用하게 됨으로써 모든 標目を 한글로 統一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의 排列도 便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넷째는 句讀點을 使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여러 圖書館에서는 句讀點을 使用한 곳도 있고 또 全然 使用치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推測컨댄 句讀點을 使用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日本式의 影響을 많이 받은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많은 混亂이 惹起되었던 것입니다. 이 問題와 關聯해서 著者名이 標目으로 쓰일 때에도 姓과 이름사이에 반드시 콤마를 찍도록 함으로써 姓名을 確實히 區別하고 排列에도 混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또 한가지는 目錄記入의 形式을 所謂 2段式으로 統一하였다는 事實입니다. 이것도 亦是 日本人들의 影響을 받아서 3段式으로 쓰인것이 많이 있으나 모든 西洋書 目錄이 2段式으로 오랜 歲月을 두고 쓰여 온 事實과 우리의 目錄도 같은 形式을 使用함으로써 利用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不便을 주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記入形式을 統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 目錄規則의 特徵인데 그中 特히 첫번째와 둘째번에 말씀드린 것은 가장 이 規則의 두드러진 特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느 나라보다도 앞선 規則이라고 自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 規則을 世上에 내놓게 됨에 있어서 그동안 이 目錄規則制定 初期부터 한 委員으로서 職責을 맡아 왔고 또 1963年初부터는 委員長의 責任을 보아온 저로서 不過 110餘面밖에 안되는 이 規則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圖書館資料 整理에 現代化가 비로서 이루어질 수 있

는 必要不可缺한 基本資料의 하나가 完成된 것을 衷心으로 기뻐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떤 規則이든지 그대로 完成된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不斷한 努力과 研究가 隨伴함으로써만 善 規則이 될 수 있고, 한 規則으로서 發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이 規則이 未備한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오렌 時日을 두고 여러분과 더불어 研究하고 檢討해 나아가야 할 問題點입니다.

이번에 이 規則이 出版됨으로써 우리들의 任務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많은 研究課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特殊事情이 充分히 反映되고, 우리나라의 標準된 目錄規則이 되어 나갈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여러해 동안 이 目錄規則을 기다리게 해 드린 것을 마음 깊이 懷擢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筆者: 梨花女大助教兼 韓國協 技術委 目錄分科委員長)

## 韓國目錄規則

〈菊版 洋裝 130面  
1000冊 限定版〉

값 會員 300 원  
    一般 360 원

A.L.A의 目錄規則, L.C 및 朴奉石氏의 東書編目規則과 1961年 國際目錄會議에서 決定된 原則等을 參考한 우리나라 初有의 體系化된 目錄規則이다.

## 韓國十進分類法

〈菊版 模造 700面  
1000冊 限定版〉

값 會員 1,500 원  
    一般 1,800 원

—附相關索引— D.D.C, N.D.C, E.C, L.C, 外 朴奉石著 朝鮮十進分類表 및 구계명 分類法, 成均館大學校, 漢籍分類法, 等 많은 既成分類法和 藏書目錄에 依한 項目의 使用 頻度까지 調査檢討하여 編纂한 本分類法은 類, 綱, 目을 우리의 事情에 맞도록 展開 配列한 分類法으로써 詳細한 註記와 展開를 細分하였으며 實務에 便하도록 相關索引까지 收錄하였다.

注文 接受 6月 25日限

配 本 6月 27日~7月 2日

注文은 本協會로